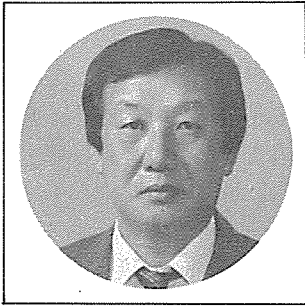


“과학기술 綜合專門誌의 육성질서”



玄 源 福
(科學저널리스트)

과학기술처가 발족한 뒤 2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과학기술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선 외형적으로 과학기술투자는 5배가 넘는 3조원규모를 넘어 섰고 연구개발인력도 거의 20배에 가까운 7만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연구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논문발표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장호남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과학논문목록(SCI) 통계에서 우리나라 논문발표수는 1988년에 1,270편으로 세계38위로 처져 있고 더욱이 인구 1만명당 논문편수는 60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우리의 과학기술진흥은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비치는 것이다. 연구할 수 있는 적격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연구비를 얻지 못해 연구를 못한다면 국가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연구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엄격한 연구평가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평가없는 연구는 발전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의 과학기술진흥은 하나의 사회과정이라고 볼 때 “출판없는 과학은 죽음(Without

publication, Science is dead)”이나 마찬가지로 말할 정도로 과학진흥에서 출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세계 7대 선진국수준의 과학기술역량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렇다 할만한 과학종합전문지 하나를 갖지 못한 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20여년간 그나마 거르지 않고 종합과학전문지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와 인원의 절대부족으로 명백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연구투자를 포함한 우리의 연구노력이 그동안 수십배에서 수백배로 늘어 났지만 우리의 출판노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과학과 기술’지를 명실공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종합과학전문지로 키우는 일은 그 돈으로 몇몇 사람에게 연구비를 더 배정하는 일 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내에 10위 이내를 지향하는 과학기술강국의 체봉에 걸맞는 종합과학지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각계의 새로운 인식을 촉구한다.